

#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웅 8월 공연

더문화, '월간더문화' 네 번째 주자로 30일 문화공감 이룸서 진행

사단법인 더문화(이사장 이운정)의 2022 월간더문화에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웅이 7월에 이어 네 번째 주자로 8월 공연을 연다.

2022 월간더문화는 사단법인 더문화가 2022년에 새롭게 기획한 올해의 주력 프로젝트로,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문화공간 이룸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매월 다른 주제와 아티스트로 다채롭고 활기찬 공연을 꾸리는 장기 프로젝트 공연이다. 또한 전북에서 만나보기 힘든 세계적 명성의 예술가들과 도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열린 음악회임과 동시에 지역주민뿐 아니라 관객이 되어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써 도내 관광 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2022 월간더문화는 지난 5월 31일 시작되어 6월과 지난 7월까지 성황리에 공연을 마무리했으며 지난 달 26일에는 세계적인 피아노 듀오 '인박 듀오'가 공연 직후 사인회도 여는 등, 많은 관객의 열띤 함성과 환호 속에서 2022 월간더문화의 7월 공연의 막을 내렸다.

그 열기가 채 가기도 전에 2022 월간더문화의 8월 주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웅이 8월 30일 자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웅은 견고한 테크닉과 다채로운 음악세계를 지닌 바이올리니스트로서, 8세에 바이올린에 입문해 11세에 서울시립교향악단과 모차르트 협주곡 제3번을 협연하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이후 예원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 예고 재학 중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로 발탁되어 이성주 교수를 사사했으며 예원학교 재학 중에는 개교 3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예원 오케스트라와 협연했고 일본 5개 도시 순회연주를 통해 기량을 뽐낸 바 있다.

어린 시절부터 각종 콩쿠르에서 1위를 휩쓰는 등, 입적이 음악적 자질을 드러냈고 한



'월간더문화'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웅 포스터

국예술종합학교 재학 중 중앙음악콩쿠르 1등 수상, KNUA 오케스트라의 협연 뿐만 아니라 KNUA 바이올린 시리즈 독주자로 선정되는 등 대내외로 인정받으며 월간 '음악춘추'가 선정한 '21세기 한국을 빛낼 젊은 연주자 23인'에도 선정되어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또한 2008년 모스카 국제콩쿠르 1등, 이듬해 프랑스 국제콩쿠르 1등을 거머쥐며 국제무대에서도 재능을 인정받았고, 음악적 성장을 위해 2006년 도려한 이현웅은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에서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니드 코간의 직계 제자인 세르게이 크라프첸코 교수를 사사했다.

첨세합과 피아노를 두루 갖춘 연주자라는 타이틀을 쥐고 있는 이현웅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와 함께 '조수미 파크 콘서트 전국투어'에서 '소프라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집시 카르멘'을 선보이며 국내 음악 애

호가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국내 여러 교향악단과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의 협연자로도 무대에 올랐다.

2019년부터 전북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는 이현웅은 오는 8월 30일, 2022 월간더문화의 8월 공연에서 프랑스의 바이올린 소나타와 그리그의 소나타 등을 통해 명성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연주 실력을 뽐내며 관객과 소통할 예정이다.

5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된 2022 월간더문화는 벌써 그 가나간 여정의 절반을 코앞에 두고 있으며 남은 하반기의 2022 월간더문화에서 만나게 될 아티스트는 다음과 같다. 9월에는 최정상 성악가들의 팜페라그룹 '크레도', 10월에는 KBS 세계테마기행에 출연한 바 있는 실력과 매소소프라노 '장은', 11월에는 바리톤 박흥우와 피아니스트 '이영신'이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를 한 자리에서 정곡 감상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이며 준비 중이며 12월에는 국내 최고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다채롭고 따뜻한 송년의 밤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운정 이사장은 "바쁘고 힘겨운 현대사회에서 코로나까지 더해져 지난 2년여간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왔다"며 "찾아드나 싶었으나 다시 고개를 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우려도 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 또한 잘 이겨내리라 믿고 지친 마음을 2022 월간더문화로 하여금 달랠 수 있기를 바라며 최고 수준의 연주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웅의 8월 공연으로 문화와 함께하는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사단법인 더문화는 2020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도내 지역민과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공익 사업을 수행하고, 적극적인 기획과 참여로 지역의 예술가들의 활동과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창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김재훈 기자

# 행복·사랑·희망 '군산문화재야행'

25~27일 군산 내항 역사문화 공간·원도심 일원서 개최

군산시는 군산만의 특색 있는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야간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인 '2022 군산문화재야행(夜行)'이 문화재 거점지역인 군산 내항 역사문화 공간 및 원도심 일원에서 다양하게 실시된다.

'2022 군산문화재야행(夜行)'은 25일부터 27일까지 '지붕 없는 야외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원도심 내 문화재와 문화재 사이를 이어주는 거리프로그램 등 지역의 예술단체와 시민이 함께하는 8(야) 50여개의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문화재 현장과 온라인 등으로 추진된다.

첫날인 25일 오후 7시 30분부터 구)조선은행 뒤 야외무대에서 그 시작을 알리는 개막공연과 함께 다양한 주제를 가진 공연들이 실시된다. 다양한 문화재 만들기 샌드아트로 보는 군산의 문화재, 야의 문화재 교실 등은 가족과의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문화재해설사와 함께하는 근대문화유산 답사(야행현장답사),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등 군산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고 빛으로 보는 문화재 등 특별한 야경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비대면 프로그램이지만, 양방향 소통을 통한 현장감을 선사해 주었다고 평가받은 '야행맨이 간다(온라인 LIVE체험)'는 전년도의 경험을 살려 현장을 찾지 못하는 관람객과 야행맨이 실시간 소통하면서 생생한 현장감을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기간 내 지역 상권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원도심 일원 상가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행사현장에서 보여주면 군산 특산 쌀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일정 확인과 신청은 '군산문화재야행'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군산=김관곤기자

# 전북도립미술관, 뮤지엄 콘서트·학술세미나 개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은 26일 뮤지엄 콘서트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장 마리 헤슬리 - 소호너머 소호'를 주제로 열린다. 20세기 세계 현대미술의 거점인 뉴욕을 장소로 삼아 디아스포라적 예술 실천을 감행했던 화가들의 삶과 예술 세계를 조명하고, 전후 뉴욕 미술현상의 흐름과 이슈를 재맥락화한다.

김은영 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제1부에서는 BILAC인스티튜트 대표이자 이번 전시의 총괄기획을 맡은 이인범 협력큐레이터가 장 마리 헤슬리의 알자스 파리, 뉴욕 소호 시절의 활동상을 살펴보고, 전시에 출품된 작품 중 뉴욕 현대미술의 다양한 흐름 속에서 일구어낸 대표적 드로잉, 회화, 조각, 설치 등 그의 예술 세계 전모를 조명하는 '장 마리 헤슬리의 예술 - 소호 너머 소호'를 발표한다. 이어 2022 제주비엔날레 박람회 감독이 '뉴욕으로 간 한인화가들'을 주제로 뉴욕 미술 현장으로 이주한 한

인 화가들의 예술적 비전과 삶을 조명한다. 마지막으로, 대전시립미술관 김주원 학예실장은 전후 뉴욕 화단을 중심으로 전개된 현대미술 담론 형성과 미술사 기술의 문제를 비교문화적 관점으로 재검토하는 '뉴욕 현대미술의 신화 만들기'의 인과'를 발표한다.

제2부에서는 이인범 협력큐레이터의 사회로 아트인컬처 김복기 대표, 한겨레신문 문화부장 조형식, 아르키미술관장 임근혜 및 발제자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한편 이번 전시는 뉴욕 소호(Soho)를 거점으로 국제적인 미술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 장 마리 헤슬리(Jean-Marie Hasslé)를 조명한다. 그는 독일-프랑스 접경 지역인 알자스(Alsace)에서 태어나 광부로 일하던 중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로부터 감화 받아 미술에 뜻을 두게 됐다. 이후 파리를 거쳐 뉴욕으로 이주해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세계 현대미술의 거점인 '소호(Soho)'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은성기자

# 남원시 관광종사자 한복 근무복 착용 근무

남원시는 8월 말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복 활성화 정책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주관 한복 근무복 보급사업에 발맞춰 한복 근무복을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도입을 통해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안내사, 광한루원 수표 업무 담당 직원은 한복 근무복을 입고 관광객을 맞이하게 되며, 시범 도입에 앞서 남원시는 지난 2월부터 한복을 실

제로 입고 근무하게 될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한복 디자이너의 컨설팅까지 거쳐 최종적으로 디자인을 결정했다.

양인환 관광과장은 "올 7월 20일 문화재청이 '한복생활'을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한복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주요 관광업무 종사자 한복 근무복 도입과 함께 남원의 문화·관광자원과 한복을 연계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한복 문화 도시 남원' 이미



자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세계사에전북비엔날레 특별기획 학술대회 27일 개최

세계사에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한글서예에 대한 세계 문화사적 보존가치와 한글서예의 매력을 알리고자 특별기획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예비엔날레에서 준비한 특별 기획 학술대회인 '한글서예의 세계 문화사적 가치'가 27일 오후 1시부터 전북대학교 진수당 1층 강연실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글서예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서예비엔날레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 처음으로 특별기획된 학술대회다.

'한글서예의 세계 문화사적 가치'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는 5편 논문이 2부로 나눠 발표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최은철 세계사에전북비엔날레 예술감독이 좌장을 맡아 전북대 이철량 명예교수, 성신여대 김봉화 교수 강원대 이래호 교수, 김정남 철학박사, 김진돈 전북도 문화재위원 등이 참여한다. /정은성 기자

## 제7회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2022년 9월 2일(금) 오후 6시~

전주한옥마을 특설무대(경기전 앞)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본 행사는 전라북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합니다.